

시민 참가 힘든 '이상한 시민 체험교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사전공고 없이 모집 마감 전날 저녁·당일 공고 접수 못한 시민들 분통... "꿈수 부리는 '그들만의 리그'나" 의혹

9살 아들을 둔 안주미(여·39·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한 '온가족 힐링 원예체험 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다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

모집 접수날짜를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매일 틈이 날 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집공고에 뜨는지를 확인했는데도, 참가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모집공고 방식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안씨는 "모집공고에 목요일 오후 늦게 올라왔고, 다음날 들어가보니 이미 마감이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모집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 모집공고를 올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인 "마치(시민에게)감추기

라도 하는 듯 공고시간도 오후 5시, 오후 7시 등 들쭉날쭉하다"면서 "시민단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누군가가 꿈을 부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모집 방식을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족 단위 힐링·체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지만, 센터가 참가자 모집공고를 사전 예고도 없이 접수일 전날 그것도 업무시간 이후 또는 접수일 당일 갑자기 올리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진행된 '2019 온가족 힐링 원예체험 교실 모집공고'의 경우 업무시간이 끝난 이날 오후 7시 44분께 홈페이지에 공지란에 올랐다. 센터측은 다음날

인 15일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돼 3시간여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교실 농산물 수확, 곤충놀이, 친환경 벼농사, 우리밀 쿠키 체험 등 다양한 농업체험 활동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수개월간 기다려온 시민들은 목요일 저녁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전 사이에 '깜짝' 진행된 모집일정을 뒤늦게 확인하는 반응이다.

특히 예초 모집공고에는 선착순으로 12가족 4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으나, 광주일보 취재 결과 추가 모집 공고도 없이 20가족 80명이 최종 선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집 절차 곳곳이 허점 투성이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집 접수일 당일에는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

지난 4일부터 모집접수를 받은 '빛고을 귀농·귀촌 교육생'은 접수당일 오후 3시 28분 홈페이지에 '깜짝' 모집 공고가 올라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모집접수가 시작된 '용기공기장 가공 교실'은 당일 오후 4시 42분 공고와 함께 접수를 받아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반면 국립광주과학관 등 타기관들은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SNS 등으로 모집 일정을 미리 알리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사공고라던 월요일 등 사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원예체험 등은 모집 전날에 당일에도 공고해 보 취재 결과 추가 모집 공고도 없이 20가족 80명이 최종 선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집 절차 곳곳이 허점 투성이었다."

한편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광주 시로부터 시비 1억6500여만원을 지원받아 ▲온가족 힐링 원예체험 교실 ▲오감만족 농부교실 에듀팜 ▲학교 친환경텃밭 조성사업 ▲도시농촌 어울림 행사 및 평가회 등 6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가능"

대법원 판결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

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해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20점을 넘긴 것이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된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에 나섰다.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착장 주차장서 차에 치여 어린 남매 사망·부상

신안의 한 선착장 주차장에서 어린 남매가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께 신안군 암태면 오도선착장 주차장에서 남매인 A(6)군과 B(7)양이 김모(여·60)씨가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숨졌고,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남매는 부모와 함께 목포를 나가려는 배편을 기다리다 남매끼리 인근 화장실에서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김씨는 "아이들의 키가 작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경찰에 따르면 A군 남매는 부모와 함께 목포를 나가려는 배편을 기다리다 남매끼리 인근 화장실에서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김씨는 "아이들의 키가 작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부적절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 정중순 장흥군수 기소의견 송치

특정 동창회 회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고발된 정중순 장흥군수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자로 지난해 10월말 전국에서 모인 장흥중·고 7·6회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상당의 식사비, 군 소유버스, 게스트하우스 숙박 등을 제공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송치했다.

또 장흥경찰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을 가담한 김모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정 군수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5·18 외곡 처벌하라"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 전남시도민대회' 참가자들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버지와 통발조업 하던 아들 발목에 줄 걸려 바다 추락 사망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께 해남군 여불도 북서쪽 7km 바다위에서 부자(父子)가 통발작업을 하던 중 아들 하모(34)씨가 발목에 줄이 걸려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안도해경에 따르면 하씨는 이날 아버지(57)와 함께 배를 타고 조업하던 중 갑자기 통발 줄이 왼쪽 발목에 감기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가 추락하자 아버지가 곧바로 그물을 올렸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하씨는 추락한지 1시간여 뒤인 낮 12시 30분께 인근에서 조업하던 K호(2.01t)에 의해 발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내 살해 후 시신 논두렁 유기 군산경찰, 50대 긴급체포

군산경찰은 24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로 A(52)씨를 지난 23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에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연락하고 달아났다가 23일 새벽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작년에 혼인한 아내와 갈등이 있었고 이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원장 입건

8시간 병원 압수수색 자료 확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입건된 22일은 경찰이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쪽이 계속 거부했다"며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위해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3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24일 새벽 3시까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정식 입건하고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병원 컴퓨터에 남겨진 관련 자료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제보자인 이 병원 전직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끝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기한 인물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관련 정황이 나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비스 제대로 못받았다"며 마사지 업소에서 행패

○서비스(?)를 확실히 받지 못했다며 마사지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서행.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43)씨는 이날 새벽 2시에 광주시 광산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와 다툰 뒤, 카운터에 놓인 화분을 손으로 밀어 뜨려 깨뜨리고 고향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

다는 것.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이날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 앞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를 하다 횡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술이 덜 깨 A씨를 귀가조치 시켰지만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